

21. 아담의 길 - 멸망의 길

아담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드리다가 사고를 쳤다는 말씀을 드렸다.

아담의 길은 하나님의 동산 안에 있었는데 동산을 나온 아담에게는 길이 없어졌다. 쉬운 비유로 말하면 그 길은 밭을 경작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둘이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길이다. 길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다. 인생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것이 길이다. 사람들은 이 길을 찾고 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 되는 것이냐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아담에게는 이 하나님의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명령이 주어졌다. 운명이 그렇게 정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아담의 길이다.

길이라는 말은 한자로 도(道)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다. 알고 보면 아주 쉬운 것이다. 별 것인 줄 알지만 사람이 할 일, 그것이 도다. 사람의 위치, 방향, 갈 곳을 아는 것이 도를 아는 것이다. 도를 통한다 해서 별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쉬운데 죽도록 고생해서 찾아 가면 그것이다.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이 길이다.

밭을 경작하는 것은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작하는 것이다. 흙에서 씨를 경작하는 것이나 흙으로 빚어진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작하는 것이나 같다. 비유적으로 한 말이니까 같은 말이다.

흙은 무엇 때문에 영광이 있는가? 씨를 키워서 열매를 내기 때문에 흙이 귀중하다. 값싸고 아무데나 버려져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흙보다 귀중한 것이 없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앞으로 심각한 전쟁이 오면 마지막은 식량전쟁이 될 것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식량 문제가 생겼다. 자기 나라에 먹을 것이 없는데 수출을 하겠는가? 그러니 식량이 생산되지 않는 나라는 위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농업을 생명 산업이라고 한다. 우리는 땅이 부족하지만 농산물 가격이 싸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입해 왔고 중국에서도 수입하고 있는데 만일 미국이나 중국에서 농산물 수출을 막아 버리면 우리는 당장 해방 직후와 같이 되고 말 것이다.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 인구는 남북한 합해서 이천 만이었는데 지금은 남한만 해도 오천만이나 되니 어떻게 먹고 살겠는가. 값이 없는 것 같지만 나라에서 땅을 보존해야 한다.

땅은 인생의 근본이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였다. 시시한 것 같고 돈도 안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금보다 훨씬 귀한 것이 흙이다. 성경에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사55:2).”고 하였다. 옛날에 흉년이 들면 좋은 물건이 싸게 나왔다. 그러면 욕심에 곡식 사 먹을 돈으로 그것을 사려고 하지만 그것을 먹고 살겠는가. 보물을 먹고 살겠는가. 금덩어리를 갖다 놓았다고 그것을 먹고 살겠는가. 금을 주고도 양식으로 바꾸지 못할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니 그런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으니 어떻게 살면 우리나라가 보존될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궁리해야 한다. 땅은 씨를 열매로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일은 기계가 사람보다 훨씬 많이 한다. 사람 값보다 기계 값이 훨씬 비싸다. 세상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람 값은 얼마 되지 않는다. 교통사고가 나서 죽으면 얼마나 받겠는가. 그에 비해 기계는 비행기 한 대값이 2000억이 넘는다고 한다. 공장에서 좋은 기계는 엄청나게 비싸다. 아무리 인권을 존중한다 해도 주인의 입장에서는 기계 하나가 망가지면 수십 억이 날아간다. 그러니 무엇이 더 귀중하겠는가. 사람의 생명보다 기계가 더 중요하다. 문명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가치가 감소되고 소멸되어 가는 것이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나와서 사람이 할 일을 대신해 버리면 사람 값은 더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살아야 사람의 가치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동산에 사는 것보다 더 인생에게 행복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동산은 사람이 사는 동네다. 오직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동네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동네다. 아담은 이것을 잃어 버렸다. 그래서 길이 없는 것이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고 만물이 서로 연합해서 이루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연합하면 생육하고 번성한다.

연합이 없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끊어져 버린다. 이것은 지식으로도 안되고 기계로도, 능력으로도 안된다.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지 않으면 사람을 만들어 낼 수 없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나무도 자웅이 결합되지 않으면 그 나무로 끝이다. 씨 없는 나무, 열매 없는 나무는 번식하기 어렵다. 나무가 오직 뿌리로만 번식한다면 미국에 있는 나무는 한국에 못온다. 씨로 오기 때문에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이다. 씨 없는 나무가 더러 있다. 사람들이 가지를 꺾어다 심거나 꽃을 보기 위해서 종자를 개량해 놓은 것이다. 그런 나무는 꽃은 좋은데 씨가 없어서 가지를 잘라 꺾꽂이를 해야 하니까 많이 퍼지지 못한다.

하나님의 동산은 사람끼리 결합해서 자식을 낳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창조적인 인격을 풍성하게 만들어 내는 곳이다. 하나님은 생명이시지만 보이지 않는 분이다. 자기 스스로는 번식이 안된다. 땅을 지배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창조적인 풍성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사람은 기계를 통해서 자기 능력을 드러낸다. 컴퓨터를 통해서, 기계를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까지 한다. 손으로 하면 소꿉장난에 불과한 일을 기계를 통해서 하면 엄청나게 할 수 있다. 포크레인 하나가 사람 백 명이 하는 것보다 일을 많이 한다. 기계를 통해서 하기 때문이다. 기계 스스로도 못하고 사람 스스로도 못한다. 둘이 연합하면 창조적인 풍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어떠하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다. 그분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인격 안에서 재생산하게 될 때는 그 풍성을 헤아릴 수 없다. 그때는 사람이 하나님같이 된다. 예수님을 보면 그런 분이다. 하나님같이 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헛갈리고 있다. 그분이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그분에게서 나타난 풍성을 보면 사람같지 않고 신인 것 같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 때문에 한쪽에서는 사람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신이라고 하며 싸우고 있다.

하나님 생명 안에는 창조적 풍성이 있다. 씨는 경작하면 30배, 60배, 100배로 증만해진다. 신기하다. 연합하면 하나님 나라가 된다. 놀랍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알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숨이 코에 붙어 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셨다.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죽어 보니 잠들어 버려서 아무것도 없었다. 어떤 사람은 죽은 다음에 어디 갔다 왔다고 하는데 나는 갔다 온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다고 내가 죽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확실히 죽었다 살아났는데 아무것도 본 일이 없다. 거기서 좋은 것을 보았다면 안오고 거기 있지 왜 왔겠는가. 천당에 가서 좋은 것을 보았으면 거기 있지 뭐 하러 땅에 또 내려오겠는가.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 너무 신기하다. 기계를 보아도 그렇다. 컴퓨터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모르지만 컴퓨터로 오만 것을 다 한다.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쓰니까 모르는 것이지 신기한 것이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 생각해 보면 신기한 기계다.

사십 년 만에 고향 땅에 갔을 때 거기서 운전을 해 보았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소풍을 간다고 5Km쯤 되는 거리를 갔다 오면 다리에 알이 배서 아프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알고 싶었다. 거기서 운전을 하면서 천천히 왔는데 언제 왔는지 모르게 와 버렸다. 어렸을 때는 소풍 다닌다고 힘들게 다니던 데를 언제 왔는지 모르게 와 버렸다. 신기한 기계다. 사람이 하루에 기껏해야 팔십 리를 걷는다고 한다. 하루에 32Km를 걷는 셈이다. 자동차로는 32Km를 가려면 30분이면 된다. 그러니 신기한 기계다.

사람이 만든 기계도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어떻겠는가! 생명의 신비는 말할 수 없다. 지금도 측량할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발휘된다. 기계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사람에게서 능력이 발휘되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동산에 가야 능력이 발휘된다.

왜 사람은 사람이 안되는가? 그것은 장소가 사람이 살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은 불완전하고 고칠 수 없는 인간이지만 17세기만 해도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다고 한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급격히 발전하니까 인간도 그렇게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잔인한 모습이 드러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더 무서운 사건이 발생했다. 거기서 인류에 대해서 희망을 가졌던 학자들의 기대가 완전히 끝나 버렸다.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게 된 것이다. 신학자들도 그러했다. 천당을 믿는 신학자들은 완전히 희망이 없어졌다. 그렇다고 새예루살렘을 믿었던 것도 아니니 절망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갈 곳이 없어진 것이다.

생명의 풍성, 창조적인 풍성은 딱 정해져 있지 않다. 기계는 창조적인 풍성이 아니지만 사람은 생명이기 때문에 창조적인 풍성이다. 악마에서부터 천사까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 사람이다. 엄청난 성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장소가 맞지 않으니까 성능이 발휘되지 않는 것이다. 물고기가 물 속에서는 별것을 다 한다. 사람은 물속에서 살 수 없다. 아무리 산소통을 가지고 가도 물속에서 오래 살 수 없다. 삼투압에 의해서 몸이 풀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물속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의 길이 없다. 수영을 하고 잠수를 하는 것은 순간적인 길밖에 안된다. 영원한 길이 될 수 없다.

자기 영역에서만, 사람의 영역에서만 생명의 창조적인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하고 살고 있다. 그 조그만 고기가 오대양을 다 휘젓고 다닌다. 연어가 강원도 모천에서 출발해서 대서양까지 그 먼 거리를 놀면서 갔다 온다. 물고기는 물 속에, 동물들은 육지에 자신의 길이 있다. 사자나 호랑이가 육지에서는 왕이라고 했지만 물속에서는 아무것도 안된다. 악어와 사자가 싸우는 것을 보니 악어는 어떻게든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하고 사자는 어떻게든 물밖으로 나오려고 했다. 육지에서는 악어가 사자와 싸움이 안되지만 물속에서는 악어가 유리하다.

자기 영역이 아니면 생명의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에서만 사람의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동산밖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하셨다. 무슨 말인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그 말은 ‘내가 동산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동산에 가려면 길이 있어야 한다. 어디로 가는가?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제자들은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예수께서는 “길이 어디 있느냐.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막막한 말이지만 너무나 합당하고 알맞은 말이다. 어떤 길이 있다 해도 만들어 놓은 길은 영원할 수 없다. 생명의 길이 되지 못한다.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고 과학이 발전했어도 생명의 길은 없다. 더 살게 못한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하지 못한다. 생명이 생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길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다. 공자님도 석가모니도 이렇게 말하지 못했다.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길이 곧 자기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말이 그 말이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동산으로 돌아갈 길이 없다.

어떤 사람은 신비를 통해서 동산으로 간다고 생각한다. 신비, 정신적인 문제, 자기 속에 있는 꿈 같은 것을 믿고 있는 것이다. 다 사람의 머릿속에서, 뇌에서 나온 것이니까 사람이 죽어 버리면 다 끝나는 것이다. 살았을 때는 유체이탈을 경험하고 몸과 마음이 다른 것을 경험했어도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몸이 어디 있고 마음이 어디 있는가. 몸이 죽었는데 무엇이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다.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 이것이 아니면 인간은 인격의 풍성을 누릴 수 없다. 그런 의미로 볼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동산으로 가는 길인 동시에 동산이다. 그 안에 길이 따로 있다는 말이 없다. 동산 안에는 무슨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작하는 것, 씨가 흙에서 경작되듯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인격으로 풍성화시키는 것, 이것이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길인 것이다.

제자들은 길이 따로 있는 줄 알고 물었다. “차라리 아버지를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이 어딴니까?”라고 물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라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아들 안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있지 아들이 아닌데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있겠는가?

그런데 아담은 그 길을 버렸다. 예수를 버린 것이다. 사람에게 그 길을 주셨는데 그것을 버린 것이니까 예수를 버린 것과 같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버리면 길이 없다. 기도를 많이 하면, 선을 많이 행하면, 정성을 드리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길이 아니다. 선을 행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사람이 달라지는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사람이 신이 되는가? 선을 행한다고 사람이 하나님 동산이 되는가?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기도는 기도로서의 의미가 있고 기능이 있다. 기도를 한다고 개가 소가 되거나 소가 개가 되지 않는다.

예수 없으면, 그 안에 내가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길이 없다. 동산이 없는데 무슨 길이 있겠는가. 아담은 이것을 버린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외면해 버렸다. 그러니 길이 없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동산에서 추방되었다고 하였다. 가시밭 길이라고 하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길이 없다는 것이다.

동산 안에 주신 길이 있었는데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잘되어 보려고 했던 것이다. 여러분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잘되어 보려고, 더 나은 것이 되어 보려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 보려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어 보려고 하다가 망했다. 자기 능력에 맞는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다하고 다른 것을 찾았던 것이다.

부자는 그릇이 다르다. 아무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 그릇을 알고 그 그릇에 맞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데 ‘아무개 사장은 이러저러하던데…….’라며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나대다가는 있는 것까지 다 없어지고 만다. 다 삼성의 이병철 씨처럼 되겠는가, 다 현대의 정주영씨처럼 되겠는가? 불가능하다. 돈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정부가 특혜를 주면 될 것 같지만 안된다. 그릇이 다르다. 이병철 씨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감탄한 적이 있었다. 김준성 씨라고 국무총리를 지냈던 분이 신년대담에서 “회장님, 어떻게 기업을 잘 하셨습니까?”라고 물었는데 그 대답이 기가 막혔다.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라는 것이었다. “노동자도 돈을 더 많이 주고 데려오고 재료도 더 값을 많이 주고 사오고 모든 것을 더 많이 주고 해야 한다.”라고 한 것이다. 누구나 그럴 배짱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짜장면 집을 해도 손님이 많으면 재료를 빼먹으려고 한다. 손님이 많이 오니까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하다 보면 그것마저 놓치고 만다. 잘 되던 식당이 갑자기 망하는 것은 돈을 더 벌려고 재료를 빼먹기 때문이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다. 가득 찼으니까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만족하다. 그러나 더 잘 되려고, 더 잘 해보려는 욕심 때문에 망한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였다. 공자님도, 석가모니도 욕심을 버리라고 했다. 사람 되려면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그런데 욕심을 버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안되는 것이다. 자기 분수를 알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세상에서도 자기 분수를 알고 ‘내 그릇은 이만하구나.’라고 알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가인과 아벨은 최선의 선택을 해 본 것이다. 인간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못한다며 난리다. 어떤 교회는 기어코 예배를 강행했다고 한다.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당연히 인생 최고의 선택이다. 하지만 소위 예배라는 형식을 따라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되는가? 장로교 요리문답 첫 번째는 “사람의 제일되는 목

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는 문답이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예배를 안하면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을 버린 것이 된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예배를 못하면 되느냐며 예배를 강행하는 것이다.

가인과 아벨은 예배를 택했다. 돈 벌러 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니까 고상한 일이고 영적인 일이며 너무나 훌륭한 일인 것 같다. 그런데 형이 아우를 죽였다. 아이러니다. 인간 최고의 선택을 했는데 거기서 형이 아우를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가인과 아벨의 세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셋의 계보가 생겼다. 가인과 아벨은 치워버리고 아담이 다시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는 팔백 년, 구백 년을 살고 죽은 아담의 후예들이 나온다. 열 명이 자식을 낳고 살다 죽었다는 말은 십대를 갔다는 뜻이고 십은 만수니까 완전하다는 뜻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병장수했다는 것이다. 인간의 가장 큰 소원은 무병장수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라 무병장수가 인간 최고의 소원이다. 이병철 회장에게 삼성을 내놓으면 200년을 살 게 해 준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다 버리고 200년을 살고 싶다고 하지 않겠는가. 무엇이라도 그러하다. 사람이 가장 아끼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병장수만 못하다. 성경에는 이것이 확실히 쓰여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다. 천 년은 못넘겼지만 살고 싶은 만큼 살았으니 지긋지긋하게 산 셈이다.

그래도 건강하게 살기만 했다면 팔백 년이 엇그제 같았을 것이다. 내가 옛날 사진을 보니 완전히 청년이다. 언제 나에게 저런 때가 있어나 싶은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언제 갔는지 모르게 가버린다. 그러니까 무병장수만큼 사람에게 근원적인 소원은 없다.

아무리 무병장수해도 항상 엇그제 같다. 이십 대에 스님과 이야기하면서 “나는 지금 이십 년을 살았는데 엇그제 같습니다. 스님은 칠십이 넘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오래 살았다는 생각이 없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그야 매 일반이야.”라고 하셨다. 칠십을 먹어도 이십 먹은 사람의 생각과 같다는 말이다. 객관적으로 보면 칠십은 이십의 세 배가 넘는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셨다. 그래서 시간과 영원은 다른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교회에서 영원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으니까 어렸을 때였지만 ‘영원은 시간과 다르구나. 백년을 살아도 마찬가지겠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와서 보니 맞다. 희한하게 스무 살 때 뒤를 돌아보면서 ‘아, 상당히 오래 살았는데…….’라고 생각했던 것이나 지금 생각하는 것이나 같다. 사람이 시간을 만들어 놓아서 그렇지 안만들어 놓았으면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른다. 달력이 없이 살아 보면 며칠이 지났는지 모른다.

지금 우리는 일주일을 단위로 사는데 일요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한 달이 지나가도 모른다. 시간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 최후의 소원은 무병장수다. 그런데 무병장수해도 허무해진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무하다. 성경을 읽어 보면 아무것도 없다. 몇 살에 자식을 낳고 몇 살에 죽었다는 것밖에 없다. 왜 시간이 짧게 보이는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람들은 유명한 자들이다. 장수족 다음에는 유명 인사들이다. 네피림이라고 하고 자이언트라고 하는데 몸통이가 크다는 말이 아니라 당시에 유명한 자들이다. 몸통이가 큰 씨가 들어오면 몸통이가 큰 놈이 유명한 놈이 되고 머리가 좋은 씨가 들어오면 머리가 좋은 놈이 유명한 놈이 되는 것이다. 유명하다는 말이 그런 뜻이다.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자들이 나왔는가? 천사와 사람이 결합했기 때문이다. 사람 속에 없는 것이 천사의 성분이다. 천사의 성분과 사람의 성분이 결합하니까 얼마나 유명한 자가 되겠는가. 재주 있는 사람을 천재(天才)라고 한다. 하늘의 재주를 가졌다는 것이다. 요즘 고등학교에서 전교 일등을 하는 학생은 천재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자이언트는 그런 천재와 비교가 안된다. 천사와 결합했으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람은 육신의 제한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데 육신의 제한이 없는 천사와 결합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이다. 사람이 천사와 결합하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다.

천사와 결합한 유명한 자들은 땅을 파괴하게 하고 말았다. 땅을 못쓰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땅은 누구를 위해 주신 것인가?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다. 사람을 위해 주셨는데 사람이 천사와 결합해 버렸으니까 땅이 견뎌내겠는가.

지금도 인간이 가는 곳마다 자연이 파괴되고 있다. 인간은 자연에게 아무 도움이 안된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문명 때문이다. 원시 시대에는 이렇지 않았다. 자연과 사람이 같이 살았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니까 사람만 가면 자연이 파괴된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에서 차량 통행이 급격히 줄어드니까 지구가 깨끗해졌다고 한다. 하늘이 깨끗해졌다는 것이다. 인간이 차만 안타도 공기가 깨끗해진다. 앞으로 전기수소차가 나오면 원전 문제는 있겠지만 공기는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

사람이 무병장수하면 허무해지고 유명해지면 땅을 파괴하게 한다. 땅은 사람이 살 터전인데 땅이

패괴해지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 그 길로 가고 있다. 자연을 지키고 땅을 지키자는 운동도 있고 세계적인 기구도 있지만 살 만한 나라에서 그러지 이제 막 개발하는 나라에서는 그런 말은 귀에 들리지도 않는다. 중국이 한참 경제개발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겠는가. 그 큰 땅덩어리에서 품어내니 제일 피해를 많이 받는 곳이 우리다. 제일 가까우니까 황사와 미세먼지가 마구 쏟아져 들어온다. 무슨 수로 막겠는가. 인간이 유명해질수록 땅은 점점 더 망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 최고의 소원이 부병장수와 유명해지는 것, 두 가지인데 이것이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간다. 이것이 모순이다. 노력하면 잘돼야 하고 더 좋아져야 하는데 좋아지기는커녕 지구가 나빠진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은 지면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하였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은 아주 무서운 말이다. 부모가 자식을 보고 “내가 너를 낳은 것을 후회한다.”고 하면 얼마나 절망적인 말인가! 자식이 얼마나 속을 썩었으면 ‘내가 저놈을 왜 낳았던가.’라는 생각을 하겠는가! 엄마는 자식을 열 달 동안 뱃속에 가지고 다니다 낳아서 진자리 마른자리 가리면서 키웠다. 그런데 엄마 입에서 “내가 왜 저것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던고. 내가 왜 저것을 낳고 좋다 했던고.”라는 소리가 나오면 그보다 저주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은 지면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인간이 최소한 그 정도는 안돼야 한다. 그렇게 되면 완전 멸망이다. 하나님이 인생을 보실 때 ‘내가 저것을 왜 만들었을까!’라고 하시면 끝이다. 인생을 보고 ‘내가 만든 인간이 그래도 괜찮구나.’ 하고 안식하셔야 한다. 자식을 보고 부모가 안심하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안식하셔야 한다.

그러나 도저히 안식할 수 없게 되었다. 밤낮으로 염려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식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하였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은 이 한마디뿐이다. 사람의 소원이 극대화되었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것이다. 성인들마다 다 욕심을 버리라고 하고 욕심을 제한하라고 한다. 그래도 그런 말을 해서 겨우 유지하는 것 같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였다. 어떻게 노아는 그 속에서 은혜를 입었을까? 이유를 보니 의인이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하였다. 장수족과 유명한 자들이 판치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후회하게 된 그 세계에서 의인이었다는 것이다. 안중근 의사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는 그 세계에서 의인이기 때문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다.

의인이 누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의’는 관계에서 나온 말이다. 법률적인 용

어로만 생각하면 안된다. ‘의’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의리라고 한다. 도둑놈들끼리도 의리가 있고 불량배들끼리도 의리가 있다. 의라는 것은 관계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었다는 말은 무병장수와 네피림이 판을 치는 세대
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밖에 없는 세대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뜻이다. 노아는 “나는 하나
님이 없으면 안됩니다.”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의로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만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셨다. 그 시대에서 노아는 입었기 때문이
다. 이로 보아 어떤 데서 은혜를 입은 것인지 알 수 있다.

훌륭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라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다. 노아는 그 사람들 속에 끼
지 못하는 사람이다. 무병장수하는 사람 세계에도 못끼는 사람이고 네피림 세계에도 못끼는 사람
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한 것이다. 넉넉한 사람이 하나님을 뭐하러 의지하겠는가. 자기 힘
으로 잘 사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겠는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다.
배고프면 할 수 없이 밥을 얻으러 가야 한다. 의라는 것이 별것이 아니다. 돈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면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것이 의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되는 사람이 있다. 자기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되겠구나.’라고 느
낀다. 멀쩡한데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보이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
겉으로 보아서는 노아를 알 수 없다. 누가 의인인지 알 수 없다.

교회에서 가난하다는 말을 하는데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
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다.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지 물질
이 가난하다는 말이 아니다. 물질이라면 GNP가 50불밖에 안되는 나라 사람들은 다 의인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셨다. 방주는 물 위에 뜨는 배다. 홍수를 내릴 것이니까 물 위에
뜨는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셨다.

방주는 신기한 것이다. 방주는 물이 있어야 뜬다. 물이 없으면 뜰 수 없다. 온 세상에 물이 덮일
때, 점점 차오를 때 방주는 물에 뜬다. 물이 차오를수록 좋은 것이 방주다. 지금은 쇠로 도크에
서 배를 만드는데 그 무거운 배가 어떻게 도크에서 움직이겠는가. 도크에 바닷물을 배가 뜰 때까지

지 채우면, 물이 많아지면 그 무거운 배가 뜬다. 진수식을 할 때 보면 그 큰 쇳덩어리가 물 위에 떠서 내려간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네피림들은 자기 힘으로 서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겠는가. 비가 와도 설마했겠지만 점점 더 와서 집이 덮이니까 나무에 올라가는 놈이 있었을 것이고 산 위로 올라가는 놈도 있었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힘이 더 좋은 놈은 더 높은 나무로 올라갔겠지만 그 나무도 물에 잠기면 갈 데가 없다. 벚나무까지 올라간 놈도 있고 소나무까지 올라간 놈도 있고 더 힘이 좋아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간 놈도 있었겠지만 물이 다 차버리니까 소용이 없게 되었다. 산으로 올라가 보니 산도 잠겼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방주를 두드려봤자 문을 다 닫았는데 문을 열어줄 수 있겠는가.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겠는가. 하늘밖에 아무것도 안보이는 것이 방주다. 창이 위로 나 있어서 밑에 개미처럼 들어붙는 놈은 보이지도 않는다. 사람들이 방주까지 와서 문을 두드렸으면 노아는 인정상 열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방주는 밑을 보지 못하게 되어 있다.

물이 차오를수록 떠오르는 것이 방주다. 역설적이다. 물은 더욱 많아지고 깊어졌고 하늘에서는 비가 계속 쏟아졌다. 네피림들은 물을 이길 수 없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사람은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을 감당할 수 없다. 노아 홍수 때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했지 물고기가 망했다는 말은 없다.

네피림에게도 한계가 있다. 사람이 별짓을 다 해봐도 한계가 있다. 지구가 폭탄이 터져서 망하게 된다면 돈 있는 사람들은 인공 위성을 타고 달나라로 옮겨가려고 할 것이나 거기서 살 수 있겠는가.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인간의 한계를 아는 것이 도를 통하는 것이다. 물고기도 아니고 방주에 있지도 않은데 어쩌겠는가. 다 멸망했다. 40주 40야를 비가 오니까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되었다. 방주만 동동 떠 있었던 것이다.

파도가 아무리 쳐도 탁구공은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 오히려 물이 많을수록 더 잘 뜬다. 부력을 통해 뜨기 때문에 물이 적을 때보다 많을 때 배는 더 편해진다. 비행기도 높이 올라갈수록 더 쉬워진다. 국제선은 기름을 적게 쓰고 바람이 안부는 데로 가려고 높이 뜬다. 이치가 다르니까 안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것이다.

동산에 살 사람은 동산에 있어야 되고 바깥에 살 사람은 바깥에 있어야 되지 동산에 살 사람이 바깥에 나오면 아무 용맹이 없고 바깥에 살아야 할 사람이 동산에 들어가면 못사는 것이다. 서로 세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부름받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안으로 부름받고 있다. 내가 맨날 하는 말이 그 말이다. ‘예수 안’이다. ‘예수 안’이 어딘가? 동산이다.

‘나는 동산에 있는데도 왜 안되는가?’라고 생각하겠지만 뭐가 안되는가? 세상이 안되는 것이지 무엇이 안되는가? 동산에는 동산의 길이 있고 세상에는 세상의 길이 있다. 세상 것을 바라면 세상의 길로 가야 되지 동산으로 가면서 세상 것까지 같이 가지고 갈 수 없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피밖에 가지고 갈 것이 없다. 다른 것까지 가지고 가면 지성소에 못들어간다. 자리가 다르다.

방에 들어갈 때와 밖에 나갈 때가 다르다. 방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어야 하고 밖에 나갈 때는 신발을 신어야 한다. 앉고 서는 것을 알아야 되지 밖에 나가는지 방에 들어가는지 모르면 안된다. 데크가 깨끗하니까 나는 방에서 신던 슬리퍼를 신고 나가는데 집사람은 나보고 슬리퍼를 신고 바깥에 나간다고 나무란다.

길은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방주였다. 이 길은 지식이나 능력과 다른 길이다. 어디를 가려면 지식이 있어야 하고 어디를 가려면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알고 가야 되지 지식의 길을 가면서 지식 없는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능력 있는 사람이 가야 할 길에서 능력 없는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살 길은 오직 방주다. 물이 창일해서 세상을 덮어버리니까 살 길은 방주밖에 없었다. 방주는 하나님이 주신 길이요 사람이 살 길이다.

사람에게 주신 길, 이것이 사람이 영원히 살 길이다. 하나님이 주신 길이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곧 길이다.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집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과 함께 그 집으로 가는 것이다. 그분과 함께 그 세계에 가고 그분과 함께 그 세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 세계는 우리가 맞보지 못한 다른 세계다. 우리가 알지 못한 다른 세계다. 책에도 없고 꿈에도 없는 세계다. 예수 안에 있는 다른 세계다. 사람이 가야 될 세계,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이다. 거기 가야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람으로 지어 주셔서 이런 곳에 데려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게 된다. 안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감사 안해도 잘사는데 무엇을 감사하겠는가. 잘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잘사는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다. 그런데 사람으로서 사는 길은 방주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사람으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모르고 영똥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외로우셨다. 길이 서로 다른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러니저러니 했던 것이다. 니고데모가 찾아왔고 희랍인들이 찾아왔다. “선생님, 한 수 배웁시다.” 하고 왔다. 한 수는커녕 예수님은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다.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셨다. 전혀 다른 말이다. 예수를 좇아온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이요 아무 상관없는 길이다. 이것이 외롭다는 뜻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그런 말이다. 다른 세계라는 뜻이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혼자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었다. 누구에게도 이 말을 할 데가 없었다. 온 천지에 아무에게도 할 말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할 말이 있지 않은가! 이런 말을 하면 즐거워할 사람들이 있다. 이 세계는 전혀 새로운 세계다. 노아가 은혜를 받는 세계다.

방주를 예비하는 세계가 있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세계가 있다. 백 살에 이삭을 주신 다른 세계가 있다. 아무나 백살이 되면 이삭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야곱이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바로를 축복하는 세계가 있다. 전혀 다른 세계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잘 살 사람인데 거기서 떠나 이드로의 집에서 양이나 치던 사람이다. 나이 팔십이 되어 아무 소망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다. 이런 세계가 있다. 전혀 다른 세계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다. 사람들이 “내려와 보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했지만 못내려오고 죽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신 세계가 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세계로 가고 있는 것이다. 방주를 타고 물 위로 유유히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방주 안에 있으면 홍수가 나도 상관없다.

오직 방주다.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방주다. 우리의 욕심이나 생각이나 포부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방주뿐이다. 사는 길은 방주뿐이다. 하나님이 주신 길은 그것밖에 없다. 이것만이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이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빈다.